

지역 소식통

고창군, 상반기 규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고창군이 규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주간 관내 소·염소 923호 5만 5,982두(소 880호 4만 9388두, 염소 43호 6574두)를 대상으로 규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소 50두, 염소 8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구입 및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규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규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문화예술기관 · 단체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설경환)는 지난 18일 센터 사무실에 고창문화예술 기관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문화도시 추진 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창문화원, 고창예총 및 산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은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도시 추진 협력네트워크(컬처체인)를 구성해 지난해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지회(이하 고창예총),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한국국악협회 고창지회, 한국미술협회 고창지회, 한국음악협회 고창지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고창지회,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10곳의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가동

정읍시, 맑은 물 공급 '총력'... 사전 예방·관리강화

정읍시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인 옥정호 수질 자율 관리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1억 4,000만원(도비 70%, 시비 30%)의 예산을 투입해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 16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수원 관리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와 불법 낚

시·어로행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수질 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된 쓰레기와 무단 투기 쓰레기 농업폐자재 등을 수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화 활동도 전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휴대전화 GPS를 통해 지킴이의 근무상황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불법행위 등 발견 시 현장에서 사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 낚시행위 등 249건의 감시·계도 활동을 벌였다. 또 정화 활동으로 8,580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옥정호 광역상수원 수질 향상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일지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 조성 조림사업 본격 착수

정읍시, 미세먼지·산사태 방지 등 기대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95천만원을 들여 86ha의 산림면적에 24만 그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목으로 수종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사에서 나무를 심어주며, 이 경우 산주는 조림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질 좋은 목재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72ha,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0ha,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4ha 규모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다.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미세먼지와 산업폐기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또 산사태 방지나 수원함양, 산주의 소득 증대 등 보이지 않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의 육성과 자연환경 보전 정책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의 숲은 18.8g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도시 숲은 평균 25.6%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만균 위원장, 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 등록

김만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환경보전특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고창군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고창에서 처음으로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고창군민과 함께 희망군정을 펼치고자 군수라는 '직책'에 도전한다"면서도 1차 관문에 해당하는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어깨동무하고 노력했던 지역의 당원들과 주민들의 허탈함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군민들과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와 특정 업체의 고창 일반근로자 입주와 관련한 군민간 갈등, 부진한 예산확보와 경기침체 등 고창이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들을 언급하며 "이제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난의 조속한 해결,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 컨벤션 센터와 대형리조트 및 다양한 호스텔 건립으로 체

류형 관광산업의 토대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며 술한 난관을 해결하고 다양한 선진문물을 접하며 체득한 역량과 인품은 고창군의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 공약 외에도 언론에 칼럼과 기고문을 통해,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스앤에스) 등을 통해 밝힌 분야별 공약에 응원하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새암로 연지아트홀에서 구)제일은행까지 650m 구간이 도심 속 걷기 좋은 길로 거듭날 전망이다.

걷고 싶은 패션 거리 만든다

정읍시,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새암로 연지아트홀에서 구)제일은행까지 650m 구간이 도심 속 걷기 좋은 길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과 거리경관을 저해하는 상가 간판을 업소별 특성에 맞춰 제작·교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에 따라 국비 3억원 포함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암로 약 130여 개의 간판에 대해 오는 7월 중으로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간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시민 청안 300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암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앰프와 스피커를 설치해 새암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기능과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패션의 거리를 조성했다.

이에 더해 시는 무질서한 간판의 높낮이를 맞추고 거리의 특색과 업소별 특성을 간판의 서체와 색채에 담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간판으로 꾸며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육외광고센터 및 자문위원 컨설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와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디자인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건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보안면 생생소통대화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는 21일 보안면 청자골 문화센터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관·단체장 및 마을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의 시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보안면 체육회의 장학생 기탁식을 시작으로 민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 비전공유,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철호 보안면장은 2022년 '주민과 함께 희망을 꿈꾸는 행복 보안'을 주제로 보안면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안'을 슬로건으로

2021년 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을 전달하는 비전공유 시간을 통해 주민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보안면 게이트볼장과 운동권 준설 현장, 주민행복 사업지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가를 격려하는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끝으로 보안면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신철호 보안면장은 "2022년 우리 보안면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